

은혜와 진리소식

2024년 6월 23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제1884호

1982년 8월 8일 창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간증)

“세상에서 가장 값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어머니를 추억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송합니다.”

- 이혜영 -

제 친정어머니는 후천적 소아마비로 인해 어릴 때부터 신체에 장애가 있으셨습니다. 결혼 후 딸셋을 낳아 힘겹게 키우시던 중 1987년에 복음을 접하고 은혜와진리교회에 나가게 되어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친정아버지는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어머니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으시고 1988년에 천국에 가셨습니다. 37살 젊은 나이에 홀로 되어 딸들의 교육과 생계유지가 막막하셨을 텐데, 어머니는 당시 국민학교 3학년과 5학년, 중학교 1학년생이었던 우리 세 딸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도로 양육을 하셨습니다.

우리 자매들은 새벽마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 일어났습니다. 불편한 몸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누구보다 예배와 전도와 교회 봉사에 열심이셨습니다. 주일은 물론 주중에도 어머니가 교회의 예배에 빠지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나는 교회에 간다”라는 말 한마디를 하시고는 뒤도 안 돌아보시고 교회에 가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서운할 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어머니의 믿음과 열정이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몸이 불편하셔서 원래 10분 이상 잘 걷지를 못하셨는데 교회에 오가실 때는 어느 건강한 사람 못지않으셨습니다. 성령충만을 받고 새 힘을 얻어서 그렇다는 어머니의 말을 그 당시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것처럼 소중히 생각하셨던 예배의 삶을 뒤로하고, 제가 결혼하여 어머니의 품을 떠난 지 19년이 되었던 작년 7월에 주님의 부름을 받고 몸이 아프실 때마다 이야기하시던 저 영화로운 천국에 가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날까지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리라”(단 12:3)는 성경말씀을 부엌 한 칸에 크게 붙여놓고, 늘 전도에 힘쓰셨습니다. 불편한 몸으로도 젊은 구역장, 수구역장 시절 매년 교회에서 전도상을 받으시고 노방전도 등 국내선교를 위한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셨습니다. 교구에 장례가 있을 때는 제일 먼저 앞장서서 달려가시고, 또 누구를 만나든지 먼저 예수님과 교회 사랑부터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저희 집에 잠깐 외손녀를 보러 와서도 그냥 돌아가지 않으시고 옆집에 사는 분들을 전도

하시고 그분들이 교회에 잘 출석하도록 책임감을 갖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몸이 많이 아파서 요양보호사 분들의 도움을 받게 되었을 때도 만나면 먼저 하는 말이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같이 교회에 가시죠!”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수요예배에 다녀오시면 그 시간이 치료받는 시간이었고,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이 한창일 때는 그분들과 함께 유튜브로 조용목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어린 아이처럼 즐거워하셨습니다.

저희 세 딸과 결혼한 사위들 모두 불신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셨는지, 시댁 부모님들의 성품이 하나같이 온화하며 며느리들의 신앙생활을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위들은 공경심을 가지고 장모님의 이야기를 잘 따르고 돌아가며 편찮은 장모님을 모시고 교회에 오가면서 천국에 가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보살폈습니다.

저는 결혼한 후 처녀 시절에 해오던 교사 봉사를 그만두고 한동안 주일성수만 하고 있었습니다. 시댁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황에서 주일예배에 참석하는 것만도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친정어머니는 그런 저의 모습을 안타까워하시고 제가 신실한 생활을 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밤낮으로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결혼하고 5년 동안 저에게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여서 망설이다가 순종하고 감사드리며 구역장 직분을 받은 후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임신 7개월이 되었을 때 유산을 하였습니다. 한동안 마음이 아팠지만 저는 그 고난이 결국 복이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몸을 추스르고 구역예배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위로 받고 기대와 소망을 버리지 않았습니. 하나님께 간구와 감사의 찬송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3개월 만에 다시 임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혼 6년만에 드디어 건강한 딸을 출산하였습니다. 그때에 한결같이 전심으로 기도해 주셨던 구역의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틈을 내어 손주를 돌보신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딸아이의 긴 겨울방학이 시작되자 저는 간간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아이와 많은 시간을 함께 지낼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찬송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다보면 저절로 눈에서 눈물이 나고 생전에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복음 전도에 대한 소망과 열정이 생겼습니다. 바로 복음지를 들고 길에 나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열심히 전도했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새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영혼에 대한 긍휼과 연민의 마음이 충만하게 일었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제 마음에 감동하여 주시므로 새벽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의

월요기도회 말씀과 교회 홈페이지의 ‘10분 말씀’ 설교를 들으며 아이의 방학이 끝날 때까지 40일 동안 예배 드리며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생전에 어머니의 간절했던 기도 제목이 사위 세 명 모두 구원을 받고 천국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새벽에 기도하기 시작한 그날 이후로 전에 없던 열심으로 남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던 중 부활절에 처음으로 성전 맨 앞좌석에 앉아서 남편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GNTC뮤지컬 공연을 보면서 가슴 뭉클한 감동을 받고 오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품성하게 체험하였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남편을 바라보았더니 남편의 눈에도 눈물이 그렇그렁 하였습니다. 너무도 놀랍고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신앙고백을 하였습니다.

저와 달리 남편에게는 자라면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봉사하고 같이 주 안에서 교제하면서 서로 믿음을 북돋워주는 교회학교와 청년 시절의 보석과 같은 신앙생활의 경험이 없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남성구역예배에 참석하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하였습니다. 세상의 모임보다 교회와 구역의 신령한 모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믿음이 깊어지고 신앙생활이 발전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저의 이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남편은 바쁘게 회사생활을 하는 중에도 열심히 구역예배에 참석하여 은혜를 받으며 즐겁고 복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며 제가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제는 가정예배도 드리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매일 딸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축복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 하나님 중심의 화목한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가족 모두 각자 교회에서 봉사하며 열심히 주님을 섬기기 위한 계획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와 전도가 삶의 전부나 다름없었던 친정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열납되어 오늘 우리 가족에게 아름답고 귀한 신앙의 열매로 맺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값진 믿음의 유산을 남겨 주신 어머니를 추억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뒤로 물러서거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굳게 서서 대장부처럼 행하셨던 어머니를 본받아 저와 남편도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훗날 주님을 만날 때 잘했다고 주님께 칭찬받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기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댁 가족의 구원을 위해 남편과 함께 매일 소망 중에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섭리와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삶에 계획하시고 섭리하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구역공과 제2권 (제1단원 : 성경에 입각한 신앙생활)

(제2과) 성경의 중심계시는 무엇인가?

- 본문 : 요한복음 12:12-16
- 요절 :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요 5:39)
- 찬송 : 101장(새찬송가 80장), 316장(새찬송가 526장)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인간 생활에 소용되는 지혜를 얻고 또 시나 소설과 같은 문학 작품의 소재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이는 마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기적의 떡을 얻어먹고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했던 불행한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면 이는 마치 밭을 갈다가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중심 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구약의 중심적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류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서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 때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전국 각처에서 예루살렘에 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입성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성 입구 큰 길가에 나와서 종려가지를 꺾어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며 대대적으로 환영하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길에 종려가지나 겉옷을 펴서 그 위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예수님을 존경한다는 것을 표현하였습니다. 이런 환영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메시야로 맞이하였음을 뜻합니다. 그렇지만 며칠 후에 예수님께 대한 그들의 기대가 무너지자 이내 그 마음이 돌변하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편에 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라고 외쳤습니다.

한편, 제자들은 민중의 열광적인 환호와 곧장 이어 다가온 배척,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련의 사건을 숨가쁘게 겪으면서 그 사건들이 의미하는 바를 미처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을 잃게 되자 제자들은 당황하였고 좌절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를 미처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자 그들의 의문은 말끔히 해결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사건들이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것들이며, 이제 비로소 성취되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이유 역시 구약의 스가랴서에 예언된 대로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슌 9:9)는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발견

하고 이해할 때 비로소 말씀을 상고한 보람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2. 신약은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회중 앞에서 낭독하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이러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눅 4:18-19)

예수님께서서는 이 말씀을 읽으신 다음에 성경책을 덮어 그 말은 자에게 주신 다음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주목하는 가운데서 말씀하시기를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방금 읽으신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 자신에 대한 것이었음을 증거하신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복음을 배척하면서 스스로 모세의 제자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모세를 믿었더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요 5:46)고 하셨으며, 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요 5:39)고 말씀하심으로 모세의 율법책을 포함한 모든 구약 성경이 곧 예수님께 대한 증거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의 모든 유대인이 그렇듯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려서부터 구약을 계속 배워 왔습니다. 또 삼년 동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랐으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서 예언된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하고 또 언약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강림하시자 구약의 모든 예언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사도들은 구약 성경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할 때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요 20:31)고 기록함으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였습니다.

본과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의 중심적인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살펴 보았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성경을 상고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열쇠로 삼아 성경의 보고(寶庫)를 열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도록 하십시오.



- 안양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031-443-3731~2, 446-9184
- 수원 : 수원시팔달구장다리로314번길3 T.031-225-3731, 234-3732
- 안산 : 안산시 화랑로 303 (고잔동) T.031-486-3731~2
- 과천 :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 (별양동) T.02-502-3731
- 시흥 : 시흥시 신천로 44번안길 20-1 (신천동) T.031-318-3731~2
- 광명 : 광명시 소하로109번길 13-18 T.02-894-3731
-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청천동) T.032-507-3731~2
- 부곡 : 의왕시 까치골1길 25 (삼동) T.031-462-3731
- 판교 :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031-716-3743, 716-7832
- 영등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다길 5 T.02-2632-3731
- 산본 :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0-18, 6층 T.031-395-8227
-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032-469-3742
- 부천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3번길 6 (송내동) T.032-652-3731~2

- 일산 :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중산동) T.031-906-3731
- 시화 : 시흥시 서촌상가3길 17 (정왕동) T.031-497-3732
- 영통 :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031-205-3732
- 구리 :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6 (인창동) T.031-567-3731
- 포일 :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031-422-9200
- 전원 :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031-298-3739
- 전원(수양관,본관) T.031-227-5992~3, 227-3739
- 김포 :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031-985-3731~2
- 평택 :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031-662-3731
- 안중 :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144 T.031-684-3731
-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041-555-3731
- 전주(평화)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2길 8-2 T.063-225-3731
- 양주 : 양주시 평화로1416번길 34-26 (덕계동) T.031-863-3731
- 원주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0 T.033-764-3735
- 강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 (수서동) T.02-459-3731
- 장유 : 경남 김해시 덕정로12번길 39-11 (관동동) T.055-312-3731
- 용인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031-337-0688
- 영종도 :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48 (운서동) T.032-751-3731
- 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남로41번길30 T.042-471-3736
- 광주 : 경기도 광주시오포읍 마루들길168 T.031-763-3720
- 남양 : 화성시 시청로102번길 56 (남양리) T.031-355-3729
- 대구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 (내당동) T.053-522-3731
- 서산 :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 (석림동) T.041-667-3731
- 울진 : 수원시 장안구 하롤로 55 (천천동) T.031-271-3731
- 동탄 : 화성시 동탄공원로1길 26-71 T.031-8015-3731
- 당진 :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 (채운동) T.041-353-3731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420 (보람동) T.044-862-3732
- 전주(효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063-239-1004
- 인제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내린천로 2572 T.033-463-1312
- 경주 : 경북 경주시 용담로 46-5 (황성동) T.054-772-7867
- 아산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동길39번길 21-18 T.041-534-3731~2
- 충주 :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 (온산동) T.043-848-3731
- 진위(제2수양관) :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031-662-3731
- 산서 : 전북 장수군 산서면 성계로2 (쌍계리) T.063-351-7518
- 진주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055-752-6675
- 온양 :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041-533-3731